

제35회 이사회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8월 12일 상의클럽 S룸에서 정장호 회장과 19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5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이사회에서는 지난 제 34회 이사회 회의록, EWI총회 참석 결과(김대규 에이텔 사장 발표), 산업정보망 구축 추진현황(김선계 세일정보통신 부장 발표) 등이 보고됐다. 또한 지난 7월 29일 입법예고된 전기통신기본법중 개정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와 함께 오성정보통신의 회원가입이 승인됐다.

특히 이사회에서는 이날 논의된 전기통신 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교환 결과를 체신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한국통신사업협회 신설 삭제, 기간 통신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과 민간부가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보장장치 신설(이상 전기통신기본법), 전화역무의 지분한도, 부가통신사업자망간의 상호접속 자율화, 적정경쟁의 강화, 정보윤리위원회 운영업무 위임(이상 전기통신사업법) 등이다. 이에 따라 우리협회는 지난 8월 16일 전기통신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체신부에 제출했다.

우리협회는 지난 8월 1일 부터 8월 9일 까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기통신 관련법 개정(안) 검토 및 의견수렴을 했으며 10일에는 전기통신 관련법 개정(안)에 따른 실무회의를 데이콤등 15개사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해 의견을 집약한 바 있다.

정보산업 세제지원방안 건의

우리협회는 지난 8월 25일 체신부등 관련기관에 정보산업 세제지원방안을 건의했다.

이 건의문에서는 정보통신산업 분야가 고도성장이 예측되나 초기투자에 비해 투자 회임기간이 길고 국내수요부족으로 시장 창출이 어려워 세제지원을 통한 산업육성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산업분류체계의 정비,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산업 지원강화,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확대, 통상마찰에 대비한 지원제도 경비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관련기사 14쪽 참조).

주요 건의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산업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정보화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기술이전소득에

CALS KOREA '94 개최 예정

우리협회는 오는 9월 30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CALS KOREA '94」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모든 제조업 생산과정의 CALS 도입 효과, EDI와의 결합을 통한 산업합리화 실현과정, CALS 구현기술, 표준활동을 위한 세계각국의 노력을 소개한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의 CALS 구현사례를

실제 프로젝트 참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될 예정이어서 국내 CALS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행사는 우리협회 한국EDI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통신기술 협회, 한국전산원, 개방형컴퓨터연구회, 세계컴퓨터그래픽재단이 후원한다.

참가문의: 조사연구부(790-4966)

대한 조세특례 신설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 업체가 수입 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분할납부 등이다.

우리협회는 지난 5월 이후 조세경감을 통한 정보산업의 투자촉진 및 사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문가그룹을 운영해 정보산업 세제지원방안을 연구하게 했으며 이 건의문은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했다. 전문가 그룹은 오윤석 회계사, 김동석 변호사, 제만호(쌍용컴퓨터 부장), 이상호(휴먼컴퓨터 부장) 노영훈 전문연구위원(한국조세연구원 등) 5명으로 구성됐었다(문의: 임성무 부장).

ION '94 준비 활발

우리 협회는 오는 11월 23일부터 25까지 3일간 롯데호텔(소공동)에서 ION'94(제3회 정보통신 상호운용 워크숍 및 전시회)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리협회는 ION '94 설명회를 지난 8월 24일 데이콤등 17명의 전시회 부스신청 예정업체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설명회에서는 한국전자통신 연구소가「ION의 개요 및 시범내용」에 대해, 우리협회가「주요행사 개최안내」에 대해 발표했으며 전시회 부스신청 예정업체들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으로 인해 정보통신망간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 행사에는 현재 세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표준 체계와 국내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시회 참가대상은 ▲정보통신 표준의 구현제품 및 서비스 ▲정보통신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시범 및 전시 ▲정보통신분야의 첨단기술 및 제품소개등이며 우리협회등 5개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다(문의:이욱재 과장).



변 · 경 · 안 · 내

• 동진정보통신

1. 일 자 : 1994년 7월 24일
2.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35-34
외환카드 빌딩
3. 대표전화 : 522-9000
4. 팩스번호 : 588-6144

• 미원정보기술

1. 일 자 : 1994년 8월 13일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45-7 성원빌딩
3. 대표전화 : 566-1561
4. 팩스번호 : 566-0243

• 한국신용정보

1. 일 자 : 1994년 8월 6일
2.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7-20
아태빌딩
3. 대표전화 : 3451-5600
4. 팩스번호 : 3451-5630